

## 社説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이 '뉴 노멀(새로운 기준)'로 떠올랐다. 광주와 전남은 위기가 아닌 희망의 새해를 꿈꾸고 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아침이다. 쉼없이 힘차게 달리는 붉은 말의 해다. 강력한 불의 기운, 말의 활력으로 혁신적 변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대도약을 재자 약속하고 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발전이 늦은 곳일수록 국가 정책과 예산에 대폭 반영해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각별한 애정을 과시하고 있다.

올해 국가 예산은 77조 9천억원에 달한다. 확장 재정 속에 광주시는 4조원 규모에 육박했고, 전남도는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주요 사업을 맹리해 역대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비약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모이는 AI 산업 거점 육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남부권 반도체 혁신밸트,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RE 100산업단지(재생에너지 차립), 인공태양 연구시설 등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황금 같은 기회를 맞았다.

광주는 AI와 미래차, 반도체 삼각축을 중심으로 신경제지도를 그려나간다는 구상이다. 국가신경망처리장치(NPU) 전용 컴퓨팅센터 설립, 인공지능전환(AX) 실증지구(밸리), AI 모빌리티신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자율주행차 200대가 도심 곳곳을 누비고, 반도체 첨

단 패키징 기지 사업도 병행해 규제자유(프리) 실증도시에 다가서고 있다. 부강한 광주를 실현할 태세다.

전남의 잠재력도 뛰어나다. 지난해 10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나라를 찾아 삼성·SK그룹과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내용의 의향서(LOI)를 체결, 주목받았다. 이제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확장하는 'AI 에너지 수도'를 제시하고 있다. 발전 수익을 모든 도민과 공유하는 기본소득 시대를 선언했다.

AI는 모든 산업을 이끄는 핵심동력으로 막

등의 이양을 위한 특별법 추진에도 속도가 붙었고,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생 협력으로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면서 광주·전남의 실질 통합을 완수해야 한다. 정말로 진심이면 통한다.

'노답(답이 없는)'이란 없다. 18년간 해묵은 난제였던 군공항 이전 문제의 영진 실태를 풀었다. 순탄하게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겨가면 248만평의 종전 부지는 실리콘밸리로 개발되고, 무안공항은 명실상부한 서남권 관문으로 자리한다. 미래 100년을 위한 마중물로 역할할

요 급등에 따라 전년에 이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호조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장밋빛 전망까지 더해지며 주가 상승세 또한 계속됐다.

신년에도 반도체·AI 위주 수출기업들의 실적 기반 장세가 이어진다는 예측이 우세한 모습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상도 조사에서 A I 투자 확대 수혜에 힘입어 반도체(DRAM)·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디스플레이(Display) 등 이른바 'R.E.D' 업종이 신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리운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고 1월 중 1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여당에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극우와 더 결속하며 물의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6·3 지방선거는 12·3 내란 동조세력을 심판하고 국가 정상화의 본궤도에 오르는 반환점이 될 것이다. 이 역시 민주주의 본산인 호남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치·사회적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는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광주·전남 곳곳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렸다.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국립공원, 최근 명소로 주목받는 서창 감성조망대, 도심 속 금당산 등에서 시민들은 새해 소원을 빌었다. 전남 지역은 여수 항일암, 해남 땅끝, 고흥 남연 해수욕장 등지에 인파가 몰렸다. 붉은 말의 해, 역동적이고 희망찬 기운이 가득한 2026년이 밝았다.

본보는 '적마(赤馬)'가 가진 뜨거운 불의 열정을 품고 세상 밖으로 전진할 것이다.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 혁신적인 기술의 진보에 부응해 과감하게 뛰어드는 용기를 낼 것이다. 결코 망설일 수 없다. 빠른 판단, 결단력이 필요한 절체절명의 시기다. 자신감을 갖되 겸손과 인내로 정론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이다. 애독자들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가 되겠다고 재차 다짐한다. 시민 행복의 최전선에 서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한다.

## 쉼없이 달리는 말의 기운으로 AI 산업 대도약 약속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대부분을 위해 광주와 전남이 결코 따로일 수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의회가 새 정부의 5·3특 기조에 발맞춰 광역연합의 출발을 알린 것은 꽤나 고무적이다. 5·3특은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나눠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추진하는 다각화 포석이다.

지방 주도의 성장을 위한 초광역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생존의 문제가 됐다. 경제와 산업 전반에서 공동체의 저력을 착실히 키워야 한다. 대전·충남의 경우 이 대통령이 행정통합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권한과 재정

것이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이 헌법기한(12월2일) 내 빠르게 확정된 만큼 조기 집행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초혁신경제 실현과 민생 안정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중앙과 지방 모두가 함께 손잡고 경기 회복의 온기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AI 인프라 구축과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객변 속에서 글로벌 패권 구도를 재편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수출입 동향을 보면 최대 수출품 인 반도체는 AI·데이터센터 투자 열풍에 DDR 5·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제품 수

전국 지자체들도 AI 산업에 역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행정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정책을 다듬으며 기민하게 대응하는 중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AI 패권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은 사활을 걸었다. 경쟁은 새해에 더 치열해질 것이고, 광주와 전남은 독보적인 전진기지로 부각될 것이다.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이순신 장군은 호남을 최후의 보루 삼아 왜란으로 위태로운 나라를 구해냈다.

친위 쿠데타를 통해 장기 집권을 획책한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 위의 권력 'VO'으로 불

## 시론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퇴직기념으로 아내가 마련해준 조지아 트래킹 여행길에 올랐다. 생전 처음 해발 5천 미터가 넘는 사카라산의 위용을 마주하며 내 두 발로 고도 3천 미터까지 한 걸음씩 나아갔다. 토해내는 거친 숨결 사이로 보이는 설봉은 하늘과 맞닿아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면 그저 도도하기만 하던 산도 가까이 다가가면 질푸른 초원의 부드러운 품에 안겨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초원은 스쳐갈 봄을 알았다. 대전·충남의 경우 이 대통령이 행정통합에 끊어진 신화 속 여신처럼 눈부셨다.

산 중턱의 초원에는 나무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키 작은 떨기나무저고리를 들자리를 허락받지 못한 듯했다. 쪽대 높은 영경 퀴마저 땅에 낙자 엎드려 줄기와 가시가 가득한 잎을 숨긴 채 경관한 눈망울로 하늘을 우러르고 있었다. 이곳은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레 걸어야 하는 신의 공간임을 하리 곧주 세운 나에게 코카서스 라벤더가 속삭여준다. 내 그림자 허로 땅에 입맞추며 경건하게 예를 갖춘다. 나를, 그리고 세상의 인연을 잠시 잊는다. 뒤파르던 내 그림자는 이름 모를 꽂

## 설산에 두고온 나

으로 피어난다. 조지아의 아름다운 산모퉁이에 그렇게 살포시 '나'를 내려놓고 왔다.

힘든 설산 내려온 후 일행이 사소한 일로 짜증을 냈다. 바라보는 내 마음 한편에 불편함이 피어올랐다. "사람이 어찌면 저리도 좀 고맙을까. 몇몇 방울만 부어도 금방 넘칠 접시 같은 사람아네. 그러려면 산에는 뭐하러 왔나?" 순간 내가 바라다보였다. 타인의 반응에 대해 곧바로 불편해하는 나 또한 편협함과 우월감에 갇혀 있었다. 이후에는 주위에 대한 나의 반응을 내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옆 사람의 반복되는 도발과 불쾌한 말투에 마음이 흔들릴 때면, 스스로를 돌아보며 몸과 마음을 낮추었다. 간장 종지보다 작은 나를 조지아에서 새롭게 만난 덕에 세상에 대해 조금은 더 겸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간의 내 오만함을 깨달으니 주위 사람들의 거슬리던 언행이 바람처럼 조용히 스쳐 지나갔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내놓으라."는 예수님이 말씀에 깊이 감동하며 예배당을 나서다가, 밀치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최고의 경지에 오른 달마대사도 "마음이여, 너 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웅출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구나."라고 탄식을 하였다고 한다. 나와 같은 범인아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제는 그러한 나도 이해하고 다독이며 꺼안을 수 있을 것 같다. 별이 야생화처럼 피어오르

는 조지아 깊은 산골 메스티아에서의 깨달음은 별빛이 돼 내 영혼을 비추고 있으리라.

내가 학생들에게 했던 이야기 중에 '밥은 한 끼, 감동은 한 주일, 깨달음은 한 달'이라는 말이 있다. 밥의 효과는 한 끼에 불과하다. 배불리 먹어도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밥 생각이 난다. 감동은 효과가 한 주일이다. 진한 감동을 받았더라도 삶 속에서 실천하다 보면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어제의 내가 되고 만다. 매주 자신이 믿는 신에게 돌아가는 것은 이때문이 아닐까 싶다. 극한 고통의 과정을 거쳐 얻은 깨달음도 길어야 한 달 혹은 한 해이다. 깨달음의 기억이 점차 희미해질 때, 그때가 다시 길을 나서야 할 때이다.

살아보니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이순(耳順)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비판마저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마음의 채를 넓히기 위한 마음공부에서 손을 놓지 않아야 한다. 이순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각각에서 벗어나야만 조금이라도 그 경지에 다가설 수 있다. 새해를 맞아 다시 나를 돌아다본다. 세상에 도움이 되겠다는 큰 포부는 내려놓고, 세상과 주위에 해는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자는 소박한 꿈을 품어본다. 새해에는 그 소박한 꿈마저도 잊은 채, 무념무상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내가 되어 하소서. 코카서스의 햇볕과 바람이 되어 흘로 산야를 날고 있을 '지난날의 나'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해 본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새해엔 '작심 3백65일'



김영순  
전남대 강사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해마다 새해를 맞으며 다짐하고 한다. 운동을 하겠다고, 글을 쓰겠다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또는 영어공부를 해보겠다고. 그러나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새해 첫 주가 지나기도 전에 다짐은 일상에 밀려 사라진다. 우리는 그 실패에 또다시 익숙해진다.

"역시 나는 안 돼." 그렇게 결심은 가벼운 의례가 되고, 다짐은 조롱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올해의 각오를 이렇게 이름 붙였다.

'작심 3백65일'

사흘짜리 의지가 아니라, 1년짜리 마음.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끝까지 가보겠다는 태도다. 다만 작심삼일이 곧바로 작심 3백65일이 되긴 어렵다.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는 방법부터 조금 바꿔보려 한다. 처음부터 1년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대신 작심 10일, 작심 100일, 작심 200일, 의지를 한 번에 끌어올리기보다, 통과 가능한 구간을 하나씩 건너는 방식이다. 작심 10일은 출발선이다. 아직 습관도, 성과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보자'는 마음을 세우는 시기다. 작심 100일은 첫 번째 고비다. 초반의 열정이 사라지고 회의가 찾아온다. 작심 200일은 제질이 바뀌는 시점이다. 이쯤 되면 의지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 나를 끌고 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작심 3백65일이 가능해진다.

사실 지금의 현실은 다짐을 세우기조차 녹록지 않다. 경제는 꽉꽉하고, 전망은 불투명하다. 청년은 청년대로 불안한 미래 앞에 서 있고,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책임과 부담에 짓눌려 있다. 누구 하나

편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 대신, 작은 속도를 선택해야 한다. 모두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애쓰는 세상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덜 불행해지고 조금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누군가는 속도를 늦추고, 누군가는 숨을 고르며, 누군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세상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작심 3백65일'은 매일 불타오르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어떤 날은 하기 쉽고, 어떤 날은 흐트리지고, 어떤 날은 멈춰 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중요한 것은 중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하루를 놓쳤다고 모든 걸 버리지 않고, 한 번 무너졌다고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태도. 다시 마음을 세우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조금씩 달라진다.

우리는 다짐에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기대가 과도해서다. 늘 완벽하게 해내려 하고, 처음부터 결과를 원한다. 하지만 변화는 대개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된다. 하루하루는 미미하지만, 3백65일이 쌓이면 분명한 궤적이 된다. 작심 365는 그 시간을 견디겠다는 약속이다.

병오년 새해는 특히 이런 태도를 요구하는 해다. 불처럼 타오르되, 한순간에 소진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기보다, 오래 갈 수 있는 속도를 찾는 것. 올해의 전략은 열심히가 아니라 지속이다. 새해의 다짐은 목표가 아니라 방향이어야 한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중요하다. 오늘은 한 걸음, 내일은 반 걸음, 어떤 날은 제자리일지도 방향만 잊지 않는다면 결국 도착한다. 그게 1년이라는 시간의 힘이다.

올해도 우리는 흔들릴 것이다. 다짐을 잊을 날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작심삼일을 자책의 언어로 쓰지 말고, '작심 10일'의 시작으로 다시 불러오자. 그걸 100일 넘기고, 200일을 통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어느새 1년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사실을, 올해의 목표는 하나님께 충분하다. 끝까지 가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 모두가 조금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병오년 새해에 '작심 3백65일'을 서서히 완성시켜 보자.

##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 역 특 집 부	650-2060	광 고 문 의	650-2099	FAX
정치부						